



1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경
2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개소식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자’ 춘천시 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운영

강원도와 춘천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도내 바이오 기업 지원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이하 센터)가 3월 2일 문을 열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내 바이오 타운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수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바이오 관련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춘천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와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바이오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들어선 센터는 올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춘천은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바이오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진단부터 백신 개발과 생산, 치료제 개발과 위탁생산을 추진하는 업체가 춘천에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센터가 장기적으로 도내 바이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

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센터에 지원 전문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규제 해소, 정부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과 임상시험 효율화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 대표들은 창업공간 확대 필요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협업, 인력 유치 지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방안, 컨설팅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춘천시 올해 임도 3곳에 7.8km 개설...힐링 공간 조성

강원 춘천시가 산림 내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임도 개설에 나섰다. 춘천시는 올해 23억원을 들여 남면 한덕리, 사북면 송암리, 동산면 원창리 등 3곳에 임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는 산불 진화와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한 용도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산책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공사 중인 남면 한덕리의 임도 2.8km 구간을 만든다. 특히 이곳은 인접한 흥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수상으로만 통행하는 10여 농가 마을을 잇는 구간으로, 개설을 마치면 주민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사북면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약 4km의 임도를 신설해 산림 소득작물 재배시설도 확충한다. 동산면 원창리는 이 일대 일명 덩바우골에서 강원대 학살림까지 임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임도 출입 이용객은 화기물을 소지할 경우 입산을 통제하고, 무단 채취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

R O M A N T I C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春川

춘천의 낭만을,
Search 하다!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때, 생각나는 춘천!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나는 여행,
우리 그곳에서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낀다.
재! 낭만이 있는 춘천으로 우리 떠나 보자



국내여행 | 강원도 | 춘천